

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등 원스톱 행정지원

시설개선 80개 업체 확정·업체당 최대 3백만 원...총 2억 소상공인 정보 제공·법률 상담·창업 등 원스톱 행정지원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 대상업체 80개소를 확정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시설물의 개량과 수리, 간판 및 인테리어, 위생관리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대비 80%의 보조금(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점포형 소상공인이며 올해 2월에 신청 접수했던 대상자 중 서류평가에 따라 고득점자 80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혹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조사업은 이번 달부터 사업을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 완료 후 30일 이

내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검사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한다. 금년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2억 원으로 지난 2월 4일 공고해 2월 7~25일(19일간) 224개 업체가 5억 5,400만 원의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시설개선사업에서 탈락한 144개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3억 5,500만 원의 예산 심의를 요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보 공유, 경영, 창업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이 지원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피해는 소상공인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경영 안정화와 소득 향상을 물론 원활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1년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33개소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순천시, 탄자니아와의 교류 활성화 나서 생태관광 활성화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여 방안 논의

순천시는 최근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Togolani Edriss Mavura) 주한탄자니아대사가 방문하여, 순천시와 탄자니아 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양자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생태관광 활성화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참여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세계 최고의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초원 지대를 형성하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통한 생태관광으로 유명한 나라다. 토골라니 대사는 "2021년 9월 부임 이래 첫 순천시 방문인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순천시와의 교류가 오늘의 만남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순천시 부시장은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간직한 탄자니아와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겠다."라며, "내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 가지고 있는 생태의 확장을 의미하며, 자연관광으로 유명한 탄자니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토골라니 대사는 순천시 주요 관광시설인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와 기적의 도서관, 순천시 청년 창업 정책을 상징하는 청춘창고 등을 방문하였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8년 탄자니아 모시시와 생태관광 분야 교류를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2021년에는 마틸다 전임 대사가, 2018년에는 재한탄자니아 유학생 대표단이 순천시를 방문했었다. 순천=김승호기자

세계의 습지, 한국의 갯벌에서 미래를 찾다

보성군, 오는 22일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보성군이 주관하는 2022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4월 22일 벌교생태공원에서 개최된다. 보성군은 '세계의 습지, 한국의 갯벌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정부, 지자체,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보성벌교갯벌은 철새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

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아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행사는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 습지의 보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갯벌의 가치 인식 증진을 위한 퍼포먼스, 스탬프 투어, 홍보버스 운영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념식은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2022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보성벌교갯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습지 보전 인식 증진과 습지 생태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주요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은 람사르협약 채택일(1971.2.2.)을 기념하여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각국 정부, 지자체, NGO, 일반 국민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정부차원의 기념식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며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보성=김명순기자



여수 돌산읍 승월마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정

여수시 돌산읍 승월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5월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승월마을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 농업환경에 대한 진단은 물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컨설팅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이 직접 농업환경 보존활동에 참여하고 분야별 과제수행에 따른 활동비도 지급받게 된다.

대상지로 선정된 돌산읍 승월마을은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벚꽃길이 아름다운 승월제와 함께 마을전체가 계단식 논밭으로 조성돼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농작물 연작으로 병충해가 증가하고, 지하수마저 오염돼 농업용수 수질이 저하되는 등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승월마을을 시작으로 농업용수 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농업환경 보존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고흥 해창만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조기준공 추진

고흥군은 지난 2018년 2월 대상지로 선정된 해창만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해 조기 준공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창만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016년 7월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갑문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수갑문 교체 및 문비의 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7년 12월 전남도 및 농림부에서 사업건의, 2018년 2월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3개 배수갑문 교체 및 문비 개보수와 함께 수위계측기 교체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고흥군은 사업시행을 위해 2018년 5월 ~ 2019년 6월까지 실시계획 용역 후 2019년 7월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 및 계약신사를 득한 후 2020년 4월 사업발주, 2020년 5월 배수갑문 문비(관급)를 조달청 구매 의뢰하여 그 해 7월 수문 제작업체가 선정되었다. 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